

2018년도 표어
『열매를 맺는 교회』
(행 2:47)

NEW
순복음Life
제23호

발행일 : 2018 .3 .4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믿음없던 신앙에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메마른 땅에 계속 물을 부어 축축한 토지가 되었고
이제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이달의 간증>

-장지은 청년-

안녕하세요! 주일학교 1학년 교사,
밀알청년회 은총 구역장, 반주팀의 드러머,
문화부원으로 사역중인 장지은 청년입니다!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이
주어짐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을
쉴틈 없이 바쁘게 보낼 수 있어 행복합니다.



성경 스토리처럼 위대한 사건만이 간증이라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저의 작은 신앙을 고백하려니 매우 긴장되고 부끄럽습니다. 짧은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이야기가 들어있을지 꺼내 보려 하니 손에 잡히지 않아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에 이것을 전하고 나누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는 놀이터였고 집보다 편한 곳이 되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렸고 무엇보다 든든했습니다. 학창시절 교회를 떠나는 언니, 오빠들을 보며 결단코 하나님을 배신치 않으리라 늘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5개월, 시흥에서 6개월이라는 두 번의 타지생활은 모태신앙이었던 저의 또 다른 못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늦잠으로 버스를 놓치고 주일을 의미 없이 보냈으며 이러한 일이 반복 될 수록 신앙양심은 무감각, 무의식에 무뎌져 갔습니다. 유일한 휴무날 당진에 내려가기 버거웠던 마음속의 또 다른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일성수를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드럼'이라는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빠질 때마다 반주자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참 믿음 없고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게 이 사역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었고 메마른 땅에 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의 믿음의 깊이를 깨닫고 다시 당진으로 내려와 생활할 때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드럼이라는 사역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떠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저 알고만 있었나 봅니다.

믿음 없던 신앙에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메마른 땅에 계속 물을 부어 촉촉한 토지가 되었고 이제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올해 저는 많은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뛰어나서 주어진 일은 결단코 아닙니다. 부족한 저를 능력으로 채우시고 제가 체험한 주님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 주어질 모든 직분과 사역에 충성을 다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 되겠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두려움은 작아진다



성도알아가기...



<성도 알아가기>

인청자 집사

1. 자기소개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멋진 사람이 아니라....유머있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이고 싶으나~~ 실상은 재미는 없지만 과묵하고 성실하며 마음이 예쁜 사람입니다.

2. 우리가족 사랑해주세요.

근면성실하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새롭게 자기의 취미(축구)를 시작해 즐거워하는 남편, 엄마 자신을 위해서 투자 하는 것을 응원하며 마음을 이해하는 큰 딸 예원, 막내로 조금은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귀엽고 어여쁜 예서♥~ 이런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3. 예원이 예서에게 보여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집사님만의 멋진 모습은 무엇일까요?
부족한 것이 많아 멋진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나의 위치에 맞는 도리를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좋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집사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었어요?

간헐적인 신앙생활에서 한곳에 적을 두고 다니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 집안인 시댁의 영향을 받았으니 결혼하면서부터입니다.

5. 남편분이 달리기를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

남편 사랑 해 주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남편에게 바란다' 20자 내외로 써주세요.

달리기를 잘해서 도 대표로까지 나갔었다고 하더라구요. 아빠를 닮아서 아이들이 달리기를 한때는 잘했었지요~ㅎㅎㅎ올해는 건강하고 금연도하고 가족모두 손 잡고 교회 가즈아~

6. 남편에게 집사님은 어떤 아내이신지요?

부족한 아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제가 알아서 일하고 그의 건강과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7. 남편분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으며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어요?

언니(인성자집사님)가 결혼하고 같이 살았는데 세 살던 집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잘 보셨나봐요.~ 좋은 사람이라며 한명을 소개 시켜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구요. 주인 아주머니는 사촌형님이 되셨지요..... 첫 만남인데 편하더라고요.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풀어 놓고 있는 저 자신을 보았지요~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다 보니 결혼준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8. 두 딸에게 하나님을 믿는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성실함과 꾸준함입니다.

9. 지금 한참 동계올림픽이 진행중이에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저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있어요. 집사님의 어릴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그 꿈은 지금도 유효하신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결과와는 상관없이 정말 가슴 벅차고 저에게 몽클함을 주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는 꿈 많은 소녀였더라고요 ㅎㅎㅎ 선생님, 직업군인 등등..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의지, 그리고 성적이라는 현실에 포기했었던것 같아요. 그러나 부족한 저에게 주일학교 교사라는 사명을 주셔서 나의 꿈을 이렇게라도 이루어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꿈을 찾아보려 합니다.

10. 바라보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디를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요?

가족의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체험을 통한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보고요. 예원이에 완전한 치료하심과 취업, 그리고 예서의 진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11. 집사님은 교회에서 묵묵히 그 맡은 일을 아주 잘 감당하고 계세요. 집사님께 교회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막의 오아시스”

12.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올해 그 길을 같이 걷고 싶은 새로운 분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남편과의 동행을 꿈꿉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혼을 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3.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듯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특히 큰아이에 대한 마음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큰애 예원이 장래의 소망을 품고 스케치해 주세요.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예원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피부와 밝은 얼굴로...

14. 독서를 좋아 하시나요? 기억에 남는 좋은 서적 한권 추천 해 주세요.

한때는 책을 좀 읽었더랬는데... 지금은 겨우 추천도서를 읽는 수준이라.. 이것도 못 읽을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천로역정이란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15. 내가 했지만 이 음식은 진짜 맛있더라고 애들이 이것만 먹으면 엄마 칭찬을 하더라고 말 할 수 있는 집사님만의 특식이 있으신지요?

가족들이 나의 손맛에 길들여져서 다 맛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닭볶음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16. 춘삼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학교는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만물은 새로운 움을 트는 시기죠~ 집사님이 새롭게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으세요?

새로운 몸(다이어트? 건강?)과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기입니다.

17. 집사님은 살림을 잘하세요? 나의 살림 솜씨를 점수로 환산 해 주세요. 그리고 살림 말고 내가 노력하면 9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는 어디 어떤 곳, 어느 분야일까요?

사실은 살림솜씨가 엉망입니다. 50점 정도는 되려나 모르겠네요~ 호호호

저희 집 햇빛이 좋아 식물들이 잘 살아요.. 죽이지 않고 살리는거 잘해요 ㅋㅋㅋ

18. 방송실에서 화면을 보고 있으시면 성도님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의 아니게 관찰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참 아니더라~ 하시는 것과 이런 모습은 본 받아야겠다는 모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해 주세요.

되도록 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제가 어떻게 판단 할 수 있겠어요? 정리하고 내려가면 성도님들의 얼굴을 잘 볼 수 없다보니 누가 오셨는지 얼굴을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19. 교회에서 필요한 다수의 인쇄물에 쓰임 받고 계신데요~^^ 집사님 인생의 좌우명을 지금 이곳에 새겨주세요. 없으시면 지금 만들어 보세요.

“까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죽은 시인의 사회’ 에서 키팅 선생님이 대학에 입학하는 목표를 위해 현재의 모든 것을 몰수당한 학생들에게 Carpe Diem 이라는 라틴어를 외칩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 필요한것 같습니다.

20. 새 구역이 편성된지 두달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구역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모두들 알아서 잘들 해 주시니 구역장으로서 너무 감사 할 뿐입니다.

올해는 아름다운 교제와 믿음을 행함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견고해져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나눔구역이 되길 기도합니다.

벌써 식구가 늘었어요.^-^

감사 릴레이

김학순 권찰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 헤메이고 있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어 지금은 성전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품에 품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노년기를 살면서 거룩과 겸손, 그리고 사랑과 진리로 주님의 섭리 아래에서 면전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일그러진 모습이 아닌 활짝 웃는 기쁨과 행복의 모습으로 살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분 : 이병철 장로님

<새로운 유초등부 학생 특집>

귀염둥이 원희야~

초등학교 입학은 축하해^^

너를 낳고 기뻐하던 때가 바로 얼마 전 일처럼 생생한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가는구나~

우리 원희는 초등학교에 가서도 지금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말고 부끄러움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엄마가 기도하고 있단다.

원희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덕과 유익을 줄 줄 아는 온바른 어린이로 자라주길 바란다.

너와 나의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를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거야^^

아빠와 엄마의 귀염둥이 원희야! 사랑한다~

또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길 바란다~

사랑하는 엄마가



하나님 났아가기가 첫 번째 꿈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우리 동유에게..
막내인지라 아빠 엄마에게는 항상 어린 아기와 같은 우리 동유가
어느새 자라서 이제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의젓한 초등학생이 되는구나.
엄마는 왜이리 설레이고 입학식이 기다려지는지 모르겠다.^^

동유도 엄마와 같은 마음이겠지?

요즘 들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 모습 또한 더욱 간절한데..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 주세요’

라는 동유의 간절한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꼭 들으셨을거라 엄마는 믿는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조금의 쑥스러움 때문에
원하는 것에 잘 나아가지 못 할 때도 있겠지만 늘 사랑하는 아들 동유와 함께 하
시는 성령하나님을 따르며 낯선 초등학교 생활을 아주 멋지게 잘할 거라 엄마는 믿
는다.

엄마도 하나님께 우리 동유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렴.

교회에 가자고 하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
사한지..

키가 자라며 믿음 또한 쑥쑥 자라서 목사님의 축복기도처럼 다윗과 같이 용감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길 기도할게~

사랑한다 동유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동유가 되길 바라며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승찬이를 제게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학교를 졸업하고 또 어린이집까지 무사히 졸업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모든 날들은 아름다운 추억들로 간직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의 발걸음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되길 원합니다.

힘찬 세상을 헤쳐 나갈 때 승찬이의 손을 잡아줄 공의로운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곁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루하루를 기도로 사는 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완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매사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켰기에 당연히 칭찬받기 합당한 승찬이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모든 이들에게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아들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 위탁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하는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밀알청년 헌신예배



1. 2018년 밀알 청년회 회장으로써 어떠한 부분에서 열매 맺는 청년회로 이끌어 가고 싶나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을 많이 잘 하고 있지만 그것이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또 이런 저런 이유는 있지만 1인 1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면 다른 열매는 당연히 따라오지 않을까요?

2. 청년회 헌신예배를 드리며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준비하고 수고하였음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청년들은 헌신예배를 준비하며 어떤 감동과 은혜 받으셨나요?

사실 이번 헌신예배는 2017년 11월부터 조금 일찍 준비하였습니다. 무언가 다른것을 해 보고 싶었고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 각자의 시간과 상황을 맞추기가 어려워 매번 모일 때마다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다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준비한 것들을 진행하는데 보니 괜한 걱정이고 염려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와 각자의 마음가짐까지도 간섭하심을 느꼈습니다.

3.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회의 색깔이 뚜렷하게 입혀지고 점점 자신의 신앙의 색을 입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꼭! 해 주고 싶은가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자란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다가 이제는 신앙을 잊은 채 살아가지만 결국 그 세상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음을 알기에 저희들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진리 되시는 주님께로 옮겨오는 발걸음이 어렵겠지만 한발자국씩 다시 시작하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4. 우리교회에서 밀알 청년회의 타이틀 같은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과 더 나아가 목사님의 말씀에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과 신앙으로 앞서신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 변치 않을 것입니다.

5. 올해 청년회의 포커스가 될 만한 행사는 무엇입니까?

사실 연중행사 중에는 헌신예배가 당연 제일 크고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전부터 전도사님께서 문학의 밤을 진행 해 보고 싶으시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아직 시도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걱정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분명 오늘과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겨울에 있을 문학의 밤 모두 기대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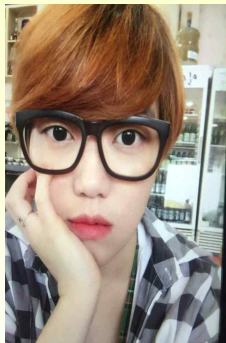
6. 마지막으로 청년회 파이팅! 한번 해 주세요.

밀알 청년회 모든 회원 여러분! 올 한해 주님만 바라보며 각자가 또한 청년회가 더 나아가 교회가 소망하는 열매 맺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새신자 소개

-김유미 성도-

임경아 권찬님을 따라 오셔서 예쁘게 예배 잘 드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많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임권찬님과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34살에 김유미 성도님입니다. 고향은 태안 연포 해수욕장 근처라고 하시네요.~~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섬마을 처녀였어요.~~~

지금은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마음이 괴로운 차에 임권찬님의 권유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 놓게 되셨구요. 목사님의 설교 중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원한다면 주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괴로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생겼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통해 해결 해 보시겠다고 다부진 포부도 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김유미 성도님의 건강하고 활기차며 기쁨 넘치는 신앙의 삶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진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설에 모두들 맛있는 떡국
 많이 드셨지요?

우리 교회 통 큰 권사님들께서
 십시일반 힘을 모아 섬겨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떡국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는 항상 권사님들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성도와 이웃
 을 섬기고 목사님의 사역에 큰 위로와 기쁨으로 언제나 발 맞춰 나가시는 것
 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로 지원하시며 때론 물질의 지원도 아끼
 시지 않으시며 교회의 안팎을 꼼꼼히 살펴 주셔서 어린 아이에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야로 이모저모 살펴 주시느라 날마다 바쁘십니다. 뒤 따라
 가는 집사님, 권찰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더 열심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의 열심 있는 모습에 감동하시고 축복 해 주실 줄 믿습니
 다.

권사님들~~~~

올해에는 교회의 표어처럼 권사님들의 삶에 소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저지후려
L L L





축구부 스페인



2018 책 사 대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장25절)



성경 숨은그림찾기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 5:1)

(숨은그림 : 도장, 하트, 삼각자, 숫자 8, 요리사 모자)

* 열납하시는 마음

- essay. 257 -



nooriart@naver.com

* 그런 상황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투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며 투임께서
바로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 소개>

레아(Leah)

뜻 : 암소

1) 라반의 장녀로 라헬과 자매간이다. 라반이 기만하여 야곱에게 시집보냈다(창 29:23).

2) 6남(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 1녀(디나)를 낳았다(창 29:31-35, 30:18-21).

3) 가나안에서 죽어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창 49:31). 그 후손에서 예수가 났다.

성경 :창세기29장31-35절 레아는 "산양"또는 "들암소"라는 뜻입니다. 라반의 맏딸로 야곱의 첫째부인 이었습니다. 레아는 미모의 여자는 못되었어도 기품이 있는 여자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이 있었으며 평생 활달하지 못한 놀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심성도 착했고 인내심도 많았으며 남을 섬길줄도 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자기는 등한시 하였어도 약간의 질투심을 가질 뿐 라헬과 맞서 감정의 대립을 갖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레아에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의 여섯 아들과 딸 디나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의 창설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레아의 혈통 유다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였습니다. 라헬이 애정과 미모와 현세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레아는 좋은 품성과 덕스러움과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남편 앞에서 세상을 떠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에 묻혔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윤봉길 : 윤봉길 의사는 1908년~1932년생입니다. 어린 나이에 윤봉길은 일제강점기를 맞이하였고, 평소에 일본에게 해방을 하기 위해 독립운동가와, 교육자, 시인이 되는 꿈을 가졌습니다. 1932년 일본이 중국



상하이 공원에서 무력으로 충돌하는 홍커우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때 일본이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홍커우 공원에서 축제를 하는 도중 윤봉길은 도시락 폭탄을 던져 일본인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봉창 : 이봉창 의사는 1900년~1932년생입니다. 이봉창도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강점기를 맞이하였고, 어린나이에 독립운동가가 되었고, 도쿄, 사쿠라다몬에서 일왕인 히로히토를 저격하려고 하였으나 폭탄이 마치 뒤에 떨어져...실패로 끝났습니다.

유관순 : 이분은 어릴 때부터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고종의 독살설이 퍼지자 이를 계기로 3.1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백성들은 한반도 전체를 함성으로 뒤덮었습니다. 일본은 유관순을 감옥에 가두었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끝내 순국하였습니다.

윤동주 : 이분은 독립 운동가이자 시인입니다.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던 중, 일본인들에게 시로 독립을 하였다고 체포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일본의 731 마루타에 의해 1945년 2월 16일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순국하였습니다.

김좌진, 홍범도 : 이분들은 1920년 6월과 10월에 일어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이긴 장군들입니다. 만주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좌진, 홍범도 등의 군사들이 만주로 오던 일본군 3000여명을 쓰러트린 전쟁이 청산리 대첩입니다. 또 봉오동 전투에서는 약 600여명을 이깁니다. 이 사건을 구실로 하여 일본 부사령관은 만주에 있던 백성들 6000여명을 살인해버립니다. 이를 계기로 나온 영화가 바로 (암살) 입니다.

김구 : 한민애국단을 창설한 인물로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지키는 것을 주장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끄는 장관이 되었고,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시사용어 Briefing

■ 호혜세

호혜세는 특정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세금에 상응해 상대국에도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종의 보복관세인 셈이다.

■ 사후신고제

사후신고제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요금 상품을 자유롭게 출시하되 이용자의 피해 소지가 있을 때만 정부가 사후 처벌하는 제도다. 이통 3사가 최근 의견을 모았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거치면서 요금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가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는 의도다.

■ TMD

TMD는 중국 뉴스 앱 투우티아오(Toutiao), 중국 1위 소셜커머스 플랫폼 메이투안 디엔핑(Meituan-Dianping),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Didi Chuxing)의 줄임말이다.

TMD는 중국 정보기술(IT) 업계를 대표했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뒤를 이은 차세대 3인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투우티아오는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알려진 인기 뉴스 앱이다.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최적화한 뉴스를 제공한다. 하루 평균 독자는 1억명 이상에 달한다.

메이투안디엔핑은 소셜커머스 플랫폼으로, 음식 배달 주문, 영화 예매, 호텔 예약, 레스토랑 할인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디추싱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로 최근에는 자동차에 이어 자전거 공유사업과 음식 배달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디디추싱은 중국 시장을 놓고 우버와 극한 경쟁을 벌이다 2016년에 우버의 중국 사업을 인수하기도 했다.

TMD가 기대를 모으는 또 하나의 분야는 기업공개(IPO) 시장이다.

바오판(包凡) 차이나르네상스(화흥자본) 최고경영자(CEO)는 TMD와 샤오미를 언급하며 "2018년과 2019년은 IPO 진행에 바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트코인 대박 & 폭박

요즘 우리 사회는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떠들썩하다.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가상 화폐이기 때문에 동전이나 지폐와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암호 화폐이다.



암호화 기술 기반으로 인프라를 활용해 익명을 보장하면서도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이 좋지 않은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규제가 없을 때만해도 비트코인 하나당 가격인 천만원대를 웃도는 현상이 일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그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 성공한 사람만을 보고 본인의 전 가산을 털어 투자했다가 본전은 고사하고 완전히 다 날려먹는 경우도 발생 하고 있다.

이러하듯 비트코인의 좋은 단면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의 규제 정도와 운영방안 등을 확인하고 투자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목숨까지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넘쳐 나는 정보의 시대에서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분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름다운 이야기>

어느 날 아침 출근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 중 이었다고 합니다. 버스기사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버스는 횡단보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탄 많은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줄도 모르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목적지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버스기사가 브레이크 고장을 알렸다면 버스 안은 아마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이 버스가 횡단보도에 이르렀을 때 기사는 한 어린아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때 버스기사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피해 핸들을 꺾게 된다면 버스 안의 많은 승객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겠지만 저 아이를 치게 된다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아이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버스기사는 어쩔 수 없이 승객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는 버스에 치여 죽음을 맞았고 브레이크가 고장 난 버스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버스기사에게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부으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승객들은 더 이상 그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기사는 버스에서 내려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아들이.....","미안하다 아들이...."를 되뇌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있었던 슬픈 실화입니다.)



파리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한 공원에서 '나는 장님입니다' 라는 팻말을 든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나가는 한 시인이 펜을 들고 다가가더니 팻말의 문구를 지우고 새로운 글을 써넣었습니다.

얼마 후 주변의 사람들이 그 장님에게로 모여들더니 너도나도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인이 팻말에 뭐라고 써넣었나요?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봄이 왔지만 나는 봄을 볼 수 없습니다.

이 한 줄의 문구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유머

- 미술시간에 음식을 그리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학생이 도화지에 까맣게 색칠해서

"김이에요" 하고 냈다.

그런데 그 미술 선생님이 도화지를 짹짹 찢으면서

"떡국에 넣어먹어라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되려 당함!

- 어떤 할머니께서 버스를 타셨는데, 앞에 버스 한 대가 더 있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아이고 저 버스를 타야 하는데 잘 못 탔네"

이러셔서 버스기사 아저씨는 뒷문을 열어 내려드렸더니 할머니는 열심히 뛰시다가 버스 앞문으로 다시 타셨다.

- 한 커플이 배스킨 라빈스에 갔는데 남자친구는 배스킨 라빈스를 처음 갔다. 여자친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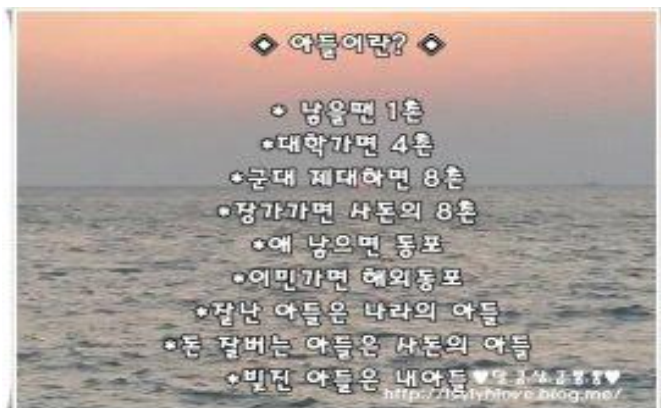
"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하나 주세요"

하니까 남자친구가 따라서

" 날라닐라 바닐라 주세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라따라따 알았따"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르바이트생의 센스~!!!



◎ 이달의 교회소식

1. 학생회헌신예배 / 3월 4일 오후5시
2. 찬양예배 / 3월 11일 저녁예배
3. 등산대회 / 3월 12일
4. 에스더여선교회 헌신예배 / 3월 18일 저녁예배
5. 종려주일 / 3월 25일
6. 고난주간 금식새벽기도회 / 3월 26일~31일
7. 성찬식 및 세족식 / 3월 29일(목) 오후7시

◎ 공지사항

1. 3월 신앙생활표어 : 너의 겉옷을 던져버리라
2. 3월 신앙서적 : 부부, 행복한 동행(김병대)

◎ 이달의 교우소식

1. 새가족등록 / 김유미성도(김시후 김나림) 2월 4일
2. 득녀(조하연) / 박혜주성도(조경환성도) - 2월 14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